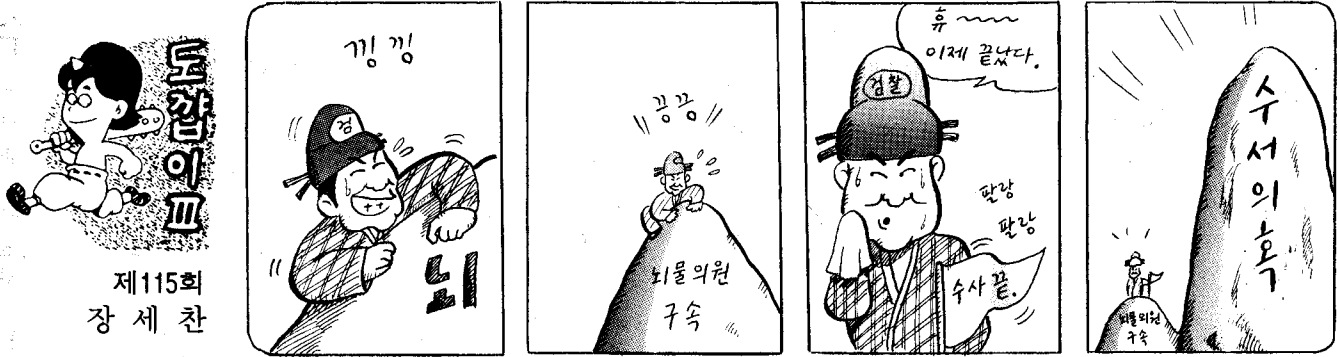




제115회
장 세 찬

예결위, 협상에 재단 참석 요구

학교·학생 의견차이로 난항 거듭

양캠퍼스 91학년도 등록금협상이 재단의 참석여부 등에 대한 의견 차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방학중 두 차례에 걸친 학교와의 협상에서 재단 참석 문제와 90년 예산총괄 등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2월5일과 12일 열린 협상 과정에서 학생측에 걸리는 '사학 재정을 국가·재단·학생 등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단도 협상자리에 참석 등록금문제와 제반 사학재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학교측은 '재단과 관계되는 문제는 재단측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하며 재단에서도 필요하다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측에서 제시한 90년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소광호(법학·3) 예결위원장은 "학교측이 편성한 예산은 지출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에서 편성한 것이므로 만약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그 차액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림으로써 학생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학교는 차액에 대한 부분은 학교

경영상의 문제라고 밝혀 이견을 나타냈다.

한편 수원캠퍼스 예결위도 학교측과의 4차례의 협상을 통해 재단에 산공채 등을 요구하였으나 서로간의 의사 개진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재전(기계·2) 부총학생회장은 학생측에서도 국감자료나 국세청자료 등을 통해 재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개강과 동시에 일반학생들이 등록금투쟁을 과학적으로 사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 상충부반의 논의가 아닌 대중투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전대기련 제7기 총회 8기 출범식 개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이하전대기련) 제7기 총회 및 제8기 출범식이 지난 9일 대전 복원대에 열렸다. 전국 59개대학신문사 5백여명의 기자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총회에서 애국신문사장에 부산공업제 신문사가 뽑혔으며 전대기련 제8기의 장으로 최원일(외대법학 편집장)군이 선출되었다.

'90 대통령기 핸드볼 큰잔치' 우승 체육 활성화 일환으로 배구·여자체조부 창단

본교 핸드볼팀은 지난 6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90 대통령기 핸드볼 큰잔치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상무를 누르고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체대 등 총 3개 팀이 출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본교 핸드볼팀은 상무를 맞아 13회의 동점과 다섯 차례의 역전이 거듭되는 공방전 끝에 경기말판 GK 이기호(체육·2)군의 선방에 힘입어 19대18, 1골차로 승리했다. 이기호군은 이 대회에서 뛰어난 개인기와 팀내 공헌도를 인정받아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한편 본교 핸드볼팀은 2, 3차 대회 1위이자 지난 해 3관왕의 전적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본

교 체육부는 방중에 지난 68년 해체되었던 배구부를 재창단하였으며 더불어 여자체조부를 창단했다.

배구부, 여자체조부는 체육활

동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단된 것이다. 한편 배구부와 여자체조부는 체육특기자선발과정을 통해 각각 18명, 9명의 선수를 선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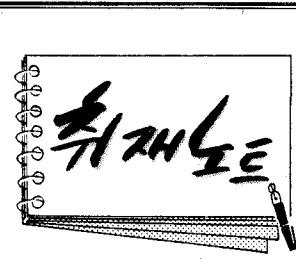
학내 보수공사 활발히 진행 대학원 불연칸막이 설치등 완료

이번 동계방학중 학내 보수공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관리과는 지난 12월 중순 도서관 화장실 개수공사와 주강내 배기 덕트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체육과대학내 운동장의 마사토작업이 오는 25일 완료된다 밝혔다.

차공사등은 현재 진행중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관리과는 1월 22일까지 기숙사주방전정 보수공사와 주강내 배기 덕트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체육과대학내 운동장의 마사토작업이 오는 25일 완료된다 밝혔다.



◆◆◆빛나는 졸업장

"어려운 대입과정을 통하여 접점산증 인고의 세월을 넘어 오늘 학위를 수여 받으시는 선배님들의 졸업장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이 우리에게 더없이 따뜻한 시간이었기에 차라한 사회로의 출발에 더욱 힘찬 전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어느 후배의 송사>

"어느태 태평연월이 꿈이던가 하노니/가고 없는 학생시절이야 다시 올 수 있으리만/졸업식이 마당에 다시 민주 외쳐

보세" <어느 졸업생의 답사>

◆◆◆나랏님의 헛된 노력
엄청난 물가인상이 부른 필연적인 대규모 춘투를 애초에 막아 보려는 노나랏님의 분투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우조선 파업에 지지를 표명한 대기업연대회의 노조간부를 제3자가 개입했다는 이유로 구속

◆◆◆하나의 물에 여러가 돌

요즘 진정중심 등록금 협상에 돌은 하나요 머리가 돌달린 자(가)가 학교측과 협상을 한다가에 알아본 즉 하나의 등록금을 두고 양쪽교에서 각자 협상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협정들, 학교에 대한 혼란전반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된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릴 것 같다는 노

◆◆◆서천리의 적막

한해에 두번씩 수원 교정은 적막이 깊어 유령의 도시 같다. 이유인즉, 방학동안은 학생들을 끌어들이 아무런 요인이 없애 우리 학생들 긴 방학을 집에서 보내거나 서울 교정을 배회하기 때문이리라?

◆◆◆수서마을 배에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리기문의 6대손으로서 저희 집안의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수서특혜를 계기로 저와

어즈버 태평연월이...

하고, 한자릿수 인상을 고수한 사업장에 대해 세계 특혜와 공권력 지원을 보장한다는 등 망명된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No나랏님, 폭력앞에 굴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을 곧 보시면 당상의 노력이 헛된 것인줄 아실것이다.

트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이번 수서특혜를 계기로 저와

학원소식

교수동정

방 곤 교수 소련행

▲방곤(외대·불문)교수=지난 29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학술발표회 참가차 소련행 ▲이성열(자연대·화학)교수=지난 1월2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동연구차 미국행 ▲우재민(공대·섬유공)교수=지난 1월2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수집차 미국행

습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이영규(국문·88) ▲김도환(국문·90) ▲김보연(생물·89) ▲유철희(물리·89) ▲김은수(경제·90) ▲김병희(경제·85) ▲문병희(경영·88) ▲이창성(경제·89) ▲신진규(무역·90) ▲조진민(영·87) ▲문은영(미교·89) ▲김길래(영·89) ▲홍성주(미교·89) ▲배영민(의·87) ▲강정수(약·90) ▲전상규

분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전현표(영문·3)=검은색 나이키가방 도서관 열람실에서 ▲장지현(철학·2)=고동색 책가방 지난 12월15일 공대1층에서
【수원캠퍼스】▲이정성(전자공·2)=학생수첩(주민등록증, 학생증, 병무카드) 도서관에서 지난11월16일 승차장주변에서 ▲최희석(무역·3)=시계 지난11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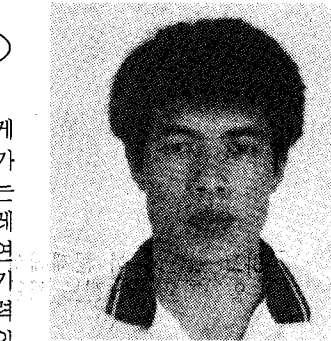
등기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서영호(국문·1) ▲고성식(생물학) ▲양윤정(수·3) ▲최승돈(화학·3) ▲홍금표(법·1) ▲차영철(정의·1) ▲정진탁(경영·1) ▲신진호(무역·3) ▲최일영(회계·2) ▲이수정(영·3) ▲정계환(미교·2) ▲이정화(식영·2) ▲김영미(식영·3) ▲이영진(의상·1) ▲이희정(한·2) ▲차용석(한·2) ▲조용주(한·2) ▲강학수(치·2) ▲김지현(기약·3) ▲박형준(체육·3)

"학위의 기쁨 보다 떠나는 것이 아쉬워"

- 본교 최초 20대 박사 최부연(전자·80)군

인터뷰



"이제 모든 연구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어떠한 물체에 에너지를 가해 그 에너지를 빛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며 간단하게 레이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최부연군은 이번 졸업식에서 '방전여기형 Krf레이저에 레이저의 출력 증폭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만 28세의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는다.

지난 80년 수원캠퍼스에 입학한 지 10년만에 학교를 떠나게된 그는 이번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보살피고 주고 시종일관 자상한 지도와 격려를 해준 이주희 교수의 여러교수 및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진입로 포장도 돼있지 않아 차를 타고오다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아 오히려 밀기 일쑤였거든요"라고 말하는 그는 붓글씨를 좋아해 '경희 연서회'의 창단 발기인이기도 한 경희대 학교 수원캠퍼스의 산 증인이다.

"졸업을 하면 전자통신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학교에 있기 보다는 연구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다시 학교로 오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처음 제가 레이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레이저를 공부하는 사

람도 적었고, 학교가 외진곳에 있어 기자재와 실험부품 구입이 곤란했어요. 학교의 실험장비도 부족했구요"라는 말로 지난 10년간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그는 어디서나 자기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신념의 소유자로 동료들 사이에 평판이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대 박사학위'에 대해 최군은 "그만큼 진취적인 생각을 일찍 가질 수 있으므로 저는 별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나 단점도 있었지요"라고 조금은 겸연쩍은 웃음을 띤다.

"학위를 받아 기쁘기 보다는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 더 아쉽고 이제는 교수님 도움없이 모든 연구를 제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하므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졸업 소감을 밝혔다. "학교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라며 후배들의 학사열을 아쉬워 하기도 하는 그는 자상한 선배였으며 또한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정이기도 하다.

<임흥준 기자>

朔風

'규격화된 부품 만드는 관영교육방송'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수용할 때 찬란한 꽃을 피운다.

해방 이후 우리의 권력들이 비민주주의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나만이 할수있다'는 독단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나의 주장만 있고 너의 주장은 없다. 있다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더욱이 너와 나 가 아닌 제 3자의 의견은 전무할 뿐이다.

도처에서 찾아지는 획일성·비능률성이 이같은 사회의 폐단을 내포한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다양화 사회로 나아가는 싸움을 고사시키지 않고 명맥을 유지시켜온 것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속에 푼힌 모순을 발견하고, 패배치고 사정제하는 언론이었다고 말한다.

언론의 정신은 그 시대를 똑바로 하는

양심 그 자체이고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좌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내용을 자신의 판단에 의해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의식을 속성으로 갖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어릴적부터 인간의 가치관을 길러주고 그 준거를 행동케하는 교육을 또 하나의 민주사회의 주춧돌로 우리는 여기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방송이 지난해 12월27일 첫전파를 보냈다. 그리고 방송의 운영, 편성, 기획은 교육부가 맡아하는 관영방송으로 가시화 됐다.

교육방송의 정식명칭은 한국교육개발

부설 '교육방송원'이다. 현재 교육방송의 달라진 모습은 기존의 KBS 제3TV 채널 사용이 교육방송 단독채널로 독립한 것과 교육부에서 파견된 교육방송담당관리관실이 자리잡았다는 것 밖에 없다.

독자제도를 가졌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편성, 기획의 대부분을 교육부의 교육방송관리관실이 담당하는 관영방송화는 그 역기능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교육부측은 교육방송의 내용을 학교교육 중심의 강의형으로 하자고 한다. 반면 PD 등 실무자는 사회교육형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강의형과 사회교육형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낙찰됐다.

그러나 이 결과는 교육부에서 파견된 관리관실 요원들이 아직 방송의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양보한 것뿐이라는 진단이다.

교육방송 실무자인 PD는 율화방송을 터트린다. 어떤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려면 유상속으로 앉아있는 관리관실에 걸쳐서류를 올려야하고 이 서류에 도장이 찍혀 내려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성은 무시되고 지침에 의해 서단 모든 것이 결정된다.

또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일순간 다른 부서로 발령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을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다.

이런 구조에서 송출돼 온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내용은 자라나, 자율과 다양성과 창의력을 맘껏 먹어야 할 학생들을 규격화된 기계부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何>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 Placement Test를 가진 Level별 학급편성
- 동일 Level로 구성된 12명 정원제
- 엄격한 학사관리
- TESL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성실한 미국인 교사진
- 수업일수 20일

Placement Test - 20일부터 주중: 1-3, 토: 4-6시

PAGODA LANGUAGE SCHOOL

종로 2가 파고다빌딩 274-4000
강남 입구정역 동호대교로 515-4020

프랑스어

3~4월 학기 수강접수중
● 개강: 91.3.4(월)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alliance française

- mauger I, II, sans fron. I, II, III
- archipel I, II, III, bonne route I
-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 traduction, thème, ISP
- 각 과정 특강 수강생, 문법총정리반, 생활
- conversation libre, 시제대어반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PUSAN ☎ 622-3601 KANGJU ☎ 526-0189
TAEJON ☎ 24-4630 GAYON ☎ 284-3475

alliance française

한글문화원

코리안호텔빌 737-4641 (대)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에 열광한 광화문의 학생들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준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학습을 하기로 작정한 분이리만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각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돌만한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학습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결국 강의형과 사회교육형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낙찰됐다.

그러나 이 결과는 교육부에서 파견된 관리관실 요원들이 아직 방송의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양보한 것뿐이라는 진단이다.

제116기 수강생모집

- 개강: 1991.3.4(8주)
- 개사: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월 75분 주 5일
- 반 편성: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제116기 수강생모집

- 개강: 1991.3.4(8주)
- 개사: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월 75분 주 5일
- 반 편성: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제116기 수강생모집

- 개강: 1991.3.4(8주)
- 개사: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월 75분 주 5일
- 반 편성: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군·행정병 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처

- 타자 행정병
- 매월 1회 단독입영
- 상급부대 행정병으로 복무

735-2323
735-9716

유니타자학원

女事務

秘 塔 經 書 理 0.A

위드프로세스
여성·영·초·대졸
단기교육 책임취임
(재학·수강료환인)

732-3375

The Korea Herald

英 字 日 刊 紙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 3월 4일

독 해 Korea Herald사설, Time, Digest 영문해석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 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생화영역, 미국인 회화

영작, 어휘력, 청취력

기본영자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중합영어 (입문→고급)

미국식교과서영어→기초영어완성→영어 실력기초→성분기본영어→성분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시반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준을 위한 1일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인회화/박성원(입문→고급) SCREEN 회화, NHK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서반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시청각 영어회화

◆ 제76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1991년 3월 7일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개인별 테스트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 이내로 반편성

● 수준테스트는 매일2회 실시합니다 (11:30AM, 6:30PM)

교육과정: 1월 2시간 주5일(월~금) 수업, 기초부터 고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미국 Harvard 대학출신등 고 학원 수준의 전인 Native Speakers.

◆ 수업시간 ◆

7:00~8:45AM 10:00~12:00AM
5:00~7:00PM 6:00~8:00PM
7:00~9:00PM 8:00~10:00PM

● 무영역 과점

● TOEFL종합반, 러시아어

● 한국어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711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